

# 임실군, 명실상부 양궁 중심지 도약

‘전북특별자치도 국제양궁장 전지훈련센터’ 준공식 개최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기량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양궁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국제양궁장 전지훈련센터가 준공됐다.

군은 지난 5일 심 민 군수를 비롯해 군의회 의원, 유관기관 및 지역 단체장,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 경과보고, 테이프 커팅식, 기념 촬영 등 ‘전북특별자치도 국제양궁장 전지훈련센터’ 준공을 축하하는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준공된 전지훈련센터는 전북특별자치도 양궁장이 위치한 오수면 금암리 486-1번지 일원에 건립됐다.

국비 16억원과 도비 24억원, 군비 12억원 등 총 52억원의 예산을 투입, 2023년 8월 공사를 시작해 올해 7월 공사를 마무리했다.

규모는 지상 4층, 연면적 1,217㎡이며, 1층에는 로비와 휴게 공간을 2층부터 4층까지는 객실을 배치했으며, 장애인실 1실과 일반 객실 25실을 갖춰 동시에 52명의 선수가 체류 가능하다.

전지훈련센터 인근 전북특별자치도 국제양궁장은 박성현 선수의 그랜드슬램 달성 기업을 위하여 연면적 2,714㎡, 대지면적 73,683㎡ 규모의 국제경기장으로 주 경기장 29,400㎡, 경



임실군은 지난 5일 심 민 군수를 비롯해 군의회 의원, 유관기관 및 지역 단체장,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 경과보고, 테이프 커팅식, 기념 촬영 등 ‘전북특별자치도 국제양궁장 전지훈련센터’ 준공을 축하하는 준공식을 개최했다.

기 운영시설 2,675㎡(3층) 등을 갖추고 2018년에 준공된 바 있다.

전지훈련센터가 완비되면서 향후 원만한 대회 운영을 위해 체계적으로 국제대회 및 전국대회 등 주요 대회를 유치하고 전북특별자치도 국제양궁장을 찾는 국내외선수단의 장기체류 훈련을 지원해 경기력 향상에 기여할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양궁장 사용 편의 증대를 위해 음향 시설, 안전 펜스, LED 전광판, 옥상 방수, 그 외 소규모 시설 보수 등을 통해 운영상 불편했던 사안들을 해

소하고 꾸준히 보완해 왔다.

향후 원활한 대회 운영을 위해 크고 작은 시설 개선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주요 대회 유치와 전지훈련센터를 통해 임실군은 국제적 양궁 메카로 거듭나는 명실상부 국제양궁의 산실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심 민 군수는 “국제양궁장 전지훈련센터를 방문하는 전지 훈련팀에게 최고의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임실군이 양궁 전지훈련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전홍영 기자

# 남원시, 모노레일 소송 상고 결정

항소심 관련 시민 권리·재산 지키기 위해 상고장 접수



남원시가 최근 모노레일 소송 항소심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소송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과 향후 행정 운영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남원시민의 권리와 재산을 지키기 위해 지난 4일 상고장을 접수했다.

시는 이번 상고 결정에 있어 △기부채납 및 사용수의 허가가 실제 사업 운영과 무관함에도 시행사가 담초 예상했던 수익이 나지 않아 대출이자를 납부할 수 없게 되자 협약을 해지, 이와 동시에 대주단이 실시협약 제19조 조항을 이용해 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발생한 점 △행정심판 재결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었던 시의 입장은 배제된 채 기부채납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시협약 해지권을 행사한 점 △대법원의 중국적 판결을 통해 지방재정을 위협하는 행위로부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등의 이유로 상고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남원시는 대법원의 중국적 판결을 통해 공공재산 관리

의 정당성을 끝까지 지켜나갈 방침이며, 이번 사안이 지역사회에 불필요한 갈등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의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해 계획이다.

또한 모든 과정에서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법적·행정적 대응을 신중하게 이어갈 계획 아래, 시민 부담 최소화를 위한 전략적 대응으로 소송 과정에서 불필요한 비용이 추가되지 않도록 법률 전문가와의 협의 체계를 강화, 판결에 따른 재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최경식 남원시장(사진)은 “△소송을 제기한 주체가 남원시로 오인돼 있는 점 △실시 협약에 의해 취득하는 권리와 의무는 사법상 계약과는 내용과 성질을 달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 △시행사가 1여년간 경영에 따른 수익자조 및 경영악화로 사업 중단을 했다는 점 등 지방재정을 위협하는 행위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을 대법원에서 명확히 규명하고자 무거운 책임감으로 상고를 결정하게 됐으며, 앞으로 남원시는 법과 원칙 속에서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공공의 가치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남원시 향교동서 10일 자살예방 커피차 캠페인 운영

남원시 향교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최현복)는 시 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박지영)와 협력해 오는 10일 오후 1시부터, 향교동복지센터 주차장에서 선착순 200명에게 ‘자살예방 커피차 캠페인’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세계자살예방의 날’을 맞이하여, 은둔형 외톨이 주민을 지역 사회로 이끌어내고, 사জন검사를 통한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

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단순한 음료 제공에 그치지 않고 방문 주민을 대상으로 우울 및 자살위험도 사전검사를 실시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고, 필요시 전문상담과 치료 연계까지 지원하는 선제적 자살예방 활동을 실현한다.

향교동과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올해 3월 업무협약(MOU)을 맺고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추진해 왔으며, 우울증

선별검사·전문상담·생명지킴이 교육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었다.

특히 1일1가구 소동행정을 기반으로 취약계층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심리적 안부를 확인하고, 정신건강센터와 연계해 맞춤형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이번 커피차 캠페인 역시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으로, 주민 스스로가 마음을 나누고, 생명을 지키는 참여형 예방활동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장애인체육회는 8일 장애인체육관에서 제19회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대회에 출전할 선수단 결단식을 개최했다.

## 순창군, 전북장애인체전 선수단 결단식

순창군 장애인체육회(회장 최영일 군수)는 8일 장애인체육관에서 제19회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대회에 출전할 선수단 결단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영일 군수, 손종석 군의회 의장과 군의원, 오은미 도의원 등 내빈과 장애인체육회 임원, 선수와 감독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결단식은 개회, 내빈 소개, 국민의례, 출전 현황 보고, 단기 수여, 격려사 순으로 진행되며, 선수단은 승리를 향한 결의를 다졌다.

이번 대회는 9월 28일부터 28일까지 고창군 일원에서 3일간 열린다.

순창군은 선수단 21명을 파견해 계

이트볼, 골볼, 론볼, 보치아, 육상 등 15개 전 종목에 출전하며, 론볼·볼링·파크골프 3개 종목은 9월 19일부터 24일까지 사전 경기로 치러진다.

최영일 군수는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해 후회 없는 경기를 펼쳐주길 바란다”며 “선수단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군 선수단은 이번 대회에서 종합 6위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열린 제18회 대회에서는 종합 2위를 기록한 바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 남원농기센터, 하우스 과채류 경로 피해 주의 당부

남원시농업기술센터는 본격적인 토마토 재배와 수확기를 앞두고 큰 일교차로 인해 시설하우스 내 경로가 발생, 작물 피해가 우려된다는 농가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토마토와 오이 등 과채류를 시설하우스에서 재배할 경우 주야간 기온 차이가 클 때 시설물과 작물 표면에 결로가 생기거나 이슬이 맺히면 병해 및 생리장

해의 주요 원인이 되며, 특히 이슬이 맺힌 상태가 4시간 이상 지속되면 껍질 벗겨짐·곰팡이병·잎곰팡이병 등 곰팡이병과 무름병·쫄마름병 같은 세균병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경로가 방치될 경우 잎의 증산 작용이 저해돼 양분 전류가 원활하지 못하고, 물방울의 동보기 효과로 인해 잎이 타거나 과실 착색 불량, 일소 등의

생리장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과실 품질이 떨어지고 생산성 저하로 직결될 수 있다.

남원시농업기술센터 김연주 소장은 “가을철 환절기에는 하우스 내부 온도가 15℃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야간 난방을 해결로 발생을 예방해야 한다”며, “또한 아침에는 서서히 환기를 시작해 공기 온도와 과실 온도의 급격한 차이로 인한 경로 발생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지역 소식 통

### 남원소방서, 9월 뱀 물림 사고 예방 당부

남원소방서(서장 김승현)는 9월 들어 뱀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야외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뱀 물림 사고 예방과 올바른 응급처치 요령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뱀은 주로 논·밭, 산림 주변, 풀무더기나 풀숲에 서식하며, 낮과 밤의 기온 차가 커지고 먹이가 줄어드는 시기에 활동이 더욱 활발해져 물림 사고 위험이 높다.

예방에는 △풀숲이나 수풀에 들어갈 때 긴 바지와 장화 착용 △풀·바위·수풀 틈을 맨손으로 뚫지 않기 △야간에 손전 등으로 발밑 확인 △뱀을 발견했을 경우 자극하지 말고 즉시 자리를 피하는 등의 행동수칙을 지켜야 한다.

뱀에 물리면 △환자를 안정시켜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물린 부위를 심장보다 낮게 유지 △상처 부위를 비누와 물로 깨끗이 씻기 △지혈대 사용이나 무리한 절개, 흡입은 피할 것 등을 지켜야 하며, 곧바로 119에 신고해 신속히 의료기관을 찾아야 한다.

/남원=김기두 기자

### 임실소방서, 우리아이 스마트 119구급서비스 운영

임실소방서(서장 김상곤)는 의료 취약계층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우리아이 스마트 119구급서비스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우리아이 스마트 119구급서비스’는 기존 ‘영유아 스마트 구급서비스’를 확대·개편한 것으로, 올해부터는 이용 연령을 기존 만 6세 이하에서 만 18세 이하까지로 넓혔다. 또한 법정 회소 질환이나 소아암 등 일부 질환에만 국한되던 서비스 범위를 응급중상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질환으로 확대해 더 많은 아동·청소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우리아이 스마트 119구급서비스’는 보호자가 가까운 소방서에 방문 또는 119에 직접 전화로 개인정보제공 동의하면 접수할 수 있다. 등록이 완료되면 응급상황 발생 시 환자 정보가 즉시 출동대원에게 전달돼 맞춤형 응급처치와 신속한 이송이 가능하다.

/임실=전홍영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 임실엔 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